

한우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전국 이·통장 연합회 MOU체결 한우사랑 캠페인 전개



한우소비를 촉진하고 실의에 빠진 한우농가를 돕고자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전국 이·통장 연합회가 뜻을 하나로 모았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국 10만 이·통장의 힘을 빌려 침체되어 있는 한우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한우협회(회장 이강우), 전국 이·통장 연합회(회장 이종규)와 ‘한우 사랑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고 6월 11일(화) 한

우자조금 사무국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한우자조금과 전국 이·통장 연합회, 전국한우협회는 전국 이·통장 회원들이 소속돼 있는 각 마을의 기업, 학교, 병원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우둔과 사태 소비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전국 이·통장 연합회 이종규 회장은 “현재 산발적으로 각 지역마다 벌어지는 한우 축제가 단발적으로 끝나는 형태가 많다”며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주는 ‘한우 브랜드 어워드’행사 및 대규모 한우박람회를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강성기 위원장은 “최일선에서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10만 이·통장들과 한우 사랑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한우협회 이강우 회장은 “한우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함께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한우자조금, 한우협회와 전국 이·통장 연합회는 9개광역시·도 한우 브랜드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한우 박람회 개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키로 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3. 06. 12

한돈

한돈자조금, 아름다운 한돈농장 및 한돈 사진공모전 개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6월 3일(월)부터 7월 31일(수)까지 ‘아름다운 한돈농장 및 한돈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깨끗하고 청결한 국내 돼지농장 및 아름다운 국산 돼지 사진은 물론, 국산 돼지고기인 한돈을 연상하도록 하는 모든 사진을 대상으로 하며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접수는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홈페이지(www.dpak.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1인당 5매까지 출품이 가능하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 및 주최하고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가 후

원하는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은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등 전문 심사위원단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575만원으로 1등(1명)은 상금 100만원, 2등(2명)은 상금 각 50만원, 3등(3명)은 상금 각 25만원, 그리고 입선(30명)작에는 상금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8월 19일(월)에 한돈닷컴(www.han-don.com) 및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홈페이지(www.dpak.or.kr)를 통해 발표되고 월간 '사진 속 여행' 9월호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오민정 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돼지 농장의 이미지가 널리 알려져, 국민들이 신선한 국산 돼지고기 한돈에 더욱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돈닷컴(www.han-don.com) 및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홈페이지(www.dp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계

양계협, 계란 판매 표준계약서로 부당거래 차단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가 계란 판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6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계란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계란 유통은 물량의 약 70%가량이 계란 유통인에 의해 유통되지만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시장은 전무한 실정인데다 직접 유통에 뛰어들어 일부 농가의 경우 시장정보

가 부족하고 거래처 영업력 미흡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타축종 축산물의 유통구조는 정부의 축산물 유통정책 지원에 힘입어 도축장, 축산물종합처리장, 대형도매시장 등의 정비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채란산업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낙후된 유통구조로 계란의 낮은 저장성, 생산의 수급불균형, 계란 수집상들의 불공정거래, 농가의 냉장시설 미비 등으로 유통인에 의해 계란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양계협회에서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표준계약서에는 계란의 가격 단위는 1판(30개)을 기준으로 양계협회 조사가격을 따르며, 유통인은 매월 공급받는 계란을 다음달 특정 기간까지 현금으로 정산해야 하며 어음 또는 수표 등 유가증권으로 대금 결제시 발행처의 부도, 압류 등으로 인해 농가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변제와 상환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와 유통인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

를 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행여나 유통인과의 부당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농가는 이를 활용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3. 06. 12



낙농육우협회, 제10회 육우데이 행사 성료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6월 9일 제10회 육우데이를 맞아, 경기도 안성 내혜홀 광장에서 CBS 육우데이 특집편성 공개 방송과 연계해 육우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육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육우고기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육우 불고기와 육우

버거 1000인분을 시식용으로 제공했다. 손정렬 회장은 “육우데이 10주년을 맞이해 국내산 육우의 집산지인 안성에서 산지 육우농가 스스로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 맛, 안전성, 경제성 3박자를 갖춘 국내산 육우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는 뜻 깊은 행사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실속 있는 국내산 육우고기가 소비자들의 더 큰 관심을 통해 언제나 사랑받는 우리 육우가 될 수 있도록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보다 체계적인 육우소비홍보 사업의 전개를 위해서 2014년 1월부터 육우 의무 자조금 사업의 개시를 목표로 관련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봉산업 육성 법제정 추진해야

정부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양봉업계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벌꿀소비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다 사양꿀의 난립으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지난해 과잉 생산된 벌꿀이 창고마다 가득 쌓여 있어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벌꿀

산업을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양봉농가의 전업화와 퇴직자의 양봉인구 증가 등으로 벌꿀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벌꿀 생산·수급조절 등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한다는 게 양봉업계의 요구다.

이에 한국양봉협회는 지난 5월 10일 신성범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그동안 T/F를 통해 마련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의원 입법발의 형태로 법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양봉산업의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2일 열린 농협벌꿀품질보증조합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양봉관련 조합장들은 "생산량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 처방보다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벌꿀의 수급조절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건의문을 통해 사양꿀 근절 및 벌꿀등급제 조기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대형 유통매장의 사양꿀 유통근절 동참을 호소했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13. 06. 17

사슴

사슴협회, 관악산서 홍보 활동 '우리 몸엔 우리 녹용이 최고'



(사)한국사슴협회(회장 정유환)가 산행홍보요원을 위촉하고 서울 관악산에서 첫 홍보활동을 가졌다. 사슴협회는 녹용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행 홍보요원을 구성을 추진해 왔다. 정유환 회장은 "최근 등산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등산객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4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해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9일 실시된 홍보행사에서는 홍보요원들이 등산로 입구에서 녹용제품 시식과 기념품을 나눠주면서 첫 행사임에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후 '우리 몸엔 우리 녹용'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산행을 하면서 등산객들에게 우리 국내산 녹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했다. 이날 홍보요원으로 위촉된 산행 홍보단은 매월 1차례씩 서울 근교 등의 유명산행 코스에서 녹용 및 사슴산물 홍보행사를 갖는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3. 06. 12